

호서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제13-2차 회의록

I. 회의 일시 : 2013년 6월 17일(월) 오후 4시

II. 회의 장소 : 아산캠퍼스 2층 평의회실

III. 참석자 :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의원	9명	함연진, 최진호, 장원경, 최경범, 박준석, 박동열, 정해천, 이정팔, 임현수
불참의원	2명	김원기, 최명곤

IV. 안건사항

1. 대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2. 기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V. 회의 :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함연진 의장 : 간사에게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조대진 간사 : 대학평의원정수 11명 중 9명 참석을 보고하다.

함연진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2차 대학평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위해서 이정팔 의원께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팔 의원 기도)

2. 안건상정 처리

함연진 의장 : 오늘 안건은

- 1) 대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
 - 2) 기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안건상정에 앞서 이전 회의록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간사 : (2013-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고하다)

- 1) 2012학년도 호서대학교 결산 자문 : 원안대로 통과
- 세입·세출 : 161,579,753 천원

최진호 장원경 이정팔

- 2) 학칙 및 벤처전문대학원 학칙 : 원안대로 통과
 - 대학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
 - 부속기관 설치에 따른 학칙 개정
 - 원격평생교육원 설치
 - 벤처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주요내용
 - 2013학년도 벤처전문대학원 학과 조정에 따른 개정
 - 학과명 변경 및 학위의 종별 조정
- 3)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위촉 : 최명곤(총학생회장)
- 4) 기타안건 : 학생회비 자율납부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함연진 의장 : 제 1안건인 대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기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팀장 :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학점인정, 논문작성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함연진 의장 :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심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연진 의장 : 개정안을 보면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구과정 이수자의 조기졸업은 없애지는 것인가요?

이창열 팀장 : 연구과정은 연구과정으로 끝나는 것이고 연구과정 안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진호 의원 :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연합신학전문대학원에는 연구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은 없는지요?

이창열 팀장 : 연합신학전문대학원도 영향을 받지만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최고경영자과정 이수자도 지금까지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정해 졸업을 시키고 올해부터 들어오는 신입생에 한해서 현 학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함연진 의원 : 금번 개정안은 교과부 대학원제도와 학점인정 관련 지침에 따른 것

으로 우리대학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음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한 가부를 묻고 전원 "가 하므로 대학원 학칙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다) 다음 학칙에 대한 심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간사 : (학칙 개정안의 조직 개편 및 2014학년도 정원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함연진 의장 : 본 학칙 개정안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입니까?

조대진 간사 : 네 그렇습니다.

함연진 의장 : 정원관련 내용은 구조강화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된 내용입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해 학과 구조강화 필요성이 있었지만, 구조강화위원회에서 주요 사안들이 다수결로 처리되는 바람에 교협에서 제시한 의견이 소수 의견으로 가려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각 단과대학 학장님들이 해당 학과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연진 의장 : 교협에서는 디지털제어공학, 국방과학기술학과, 패션학과는 각 15명씩 감해서 25명 모집을 하게 되어있는데, 25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폐과에 준하는 가혹한 조치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과대학 간 참여한 이해관계가 있는데다가, 학교측에서는 현 구조강화 규정을 적용하여 세 학과의 정원을 15명씩 감축하는 안을 두고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과학기술학과는 신설학과에 속하는 바, 7년간 평가유예기간과는 문제가 없는지요?

조대진 간사 : 7년 유예해서 금년도부터 평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평가는 했지만 구조강화 등의 행정조치는 없었습니다.

박준석 의원 : 기존방식에 의하면 학과 평가에 있어서 단순 취업률 수치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작년에 교과부에서 유사학과 취업률 결과를 발표했을 때 호서대에서는 중상위권 학과이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달인 경우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단순 전공을 무시한 수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국 유사학과 평균으로 평가기준을 바꾸어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학교평균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방식은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니 취약학과를 없애는 구조조정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학문의 특성을 가진 학과들이 없어지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만 살아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원경 의원 : 취업률 지표는 각 전공별로 전국 평균을 통해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조대진 간사 : 단과대별로 모아서 그룹화를 통해 T점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14 학년도 학과평가 시에는 전국유사학과 평균 취업률을 반영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개선안은 단과대별 내에서의 평가 방식 70%와 전국 유사학과 평균 대비 배점을 30%로 하는데, 전체를 유사학과 평가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대학 내에서는 우수학과임에도 취업률이 전국평균에 미달되는 학과는 배점이 낮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30프로 반영을 할 예정이고, 1년 시행해서 분석한 후에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연진 의장: 교육부에서도 학문 특성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국평균 관점에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교내의 평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석 의원 : 개선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학교 내에서는 취업률이 중상위권인데, 전국 평균에 미달이었을 때 그 학과들이 학교평균에 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원경 의원 : 기획예산팀장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국 유사학과 취업률 대비 배점을 올해 30% 반영하고, 다음번에는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과만족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잘못된 평가지표 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 기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학과만족도가 떨어지는 학과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함연진 의장 : 정원이 20-30명인 학과가 상대적으로 학과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장원경 의원 :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타당한 것인지 확인을 한 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박준석 의원 : 동의합니다. 사실상 현 학과 만족도 문항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함연진 의장 : 평가지표를 보면 득을 보는 과도 있고 반대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평가지표의 합리성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학과의 전국평균 대비 학문분야별로 전국평가 수준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조대진 간사 : 학과평가 개선안이 매년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과로부터 의견을 받았었고, 학과만족도도 올해 평가지표에는 제외되었습니다. 수업반응도 부분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학과들도 있고, 개인평가에 기 반영 등 이중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제외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범 의원 : 특기자 모집 등 특별전형으로 인한 입시경쟁률을 일반 경쟁률과 같이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로 특정 학과의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도 형평성 관점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천 의원 : 오늘 언급된 학과평가 개선안 뿐 만 아니라 향후 관련 의견은 합당한 사유와 함께 학교 당국에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연진 의장 :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없으므로, 학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 가부를 물음. 전원 '가'함으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함연진 의장 : 다음은 기타 대학평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팔 의원 : 지난번 회의 때 건의했던 학교 홍보 및 유도 사인 표지판 설치 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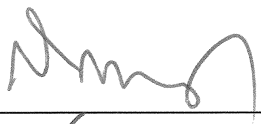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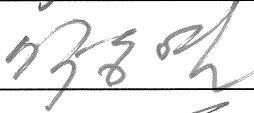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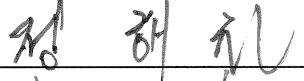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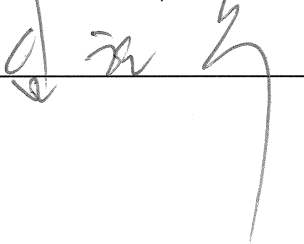
조대진 간사 : 현재 바로 설치하기에는 도로가 확장 공사 단계여서 지금은 어려운 상태며, 조만간 8차로가 완성이 되면 작업할 것으로 관리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추가적인 심의사항이 있는지 묻고, 없으므로 폐회 동의를 물음. 동의와 재청으로 가부를 묻고 일동 "가"함으로 폐회를 선언함)

위 의결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의원이 서명 날인하며 최진호 의원, 장원경 의원, 이정팔 의원을 대표로 선임하여 간서명 할 것을 의장이 요청하다.

상기 기재사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13년 6월 18일

의장 함연진		의원 장원경	
의원 박준석		의원 최경범	
의원 최진호		의원 박동열	
의원 정해천		의원 이정팔	
의원 임현수			

최진호 장원경 이정팔
- 6 -